◎松廣寺銀絲香垸의 破壞

昨年末 盜難되었던 此品은 그 後 犯人逮捕에 따라 回收되었으나 身臺가 分離되었고 특히 身部下半은 破壞되었으며 廣緣部도 損傷되었다。또 慈靜國師舍利容器인 靑瓷盒은 完全하였으나 舍利甁은 紛失되고 말았으며 기타 普照禪師念珠 靑銅小佛등도 未回收라 한다。(四月 二十日 洪思俊 黃壽永 同寺調査)

◎江華三巨里支石墓調査

國博에서는 五月 七日부터 一〇日間 豫定으로 江華郡 河岾面 三巨里에 있는 倒壞된 北方式支石墓를 整理調査한다。豫定調査 支石墓數는 五基이며 그중 二基는 支石만이 남았고 他二基는 倒壞되었으며 一基만은 完全하게서 있으나 支石內部는 이미 攪亂된 흔적이 많다고 한다。

◎東國大博物館陳列室의 新設

同校에서는 開校六十周年을 맞아 그사이 準備하여 오던 陳列室을 마련하여 五月 八日 一般에게 公開하였다。이번의 記念展에는 同校所藏品以外에 松廣寺 華嚴寺 奉恩寺의 出品과 李洪根 崔漢國氏등의 特別 貸助出品이 있었다。陳列品의 主內容은 佛敎美術의 것으로서 三國、新羅、高麗의 것이 包含되었다。

◎梨大博物館論文發表會

梨大大學院과 史學科卒業生中 考古美術關係論文發表會를 開催하였다。發表者와 演題는 다음과 같다。

韓國蓮華文樣式變遷에 對한 硏究 金和英

韓國佛像光背樣式에 對하여 王俊子

◎韓國大學博物館協會展

梨大創立八十周年을 紀念하여 同校博物館에서 第四回 聯合展示會를 갖는다고 한다。十個校에서 出品된 遺物은 一六六種 三九〇點에 達하며 舊石器時代에서 最近世에 이르는 各時期의 遺物이 網羅되었다고 한다。展示期日은 五月 二十三日부터 六月 十一日까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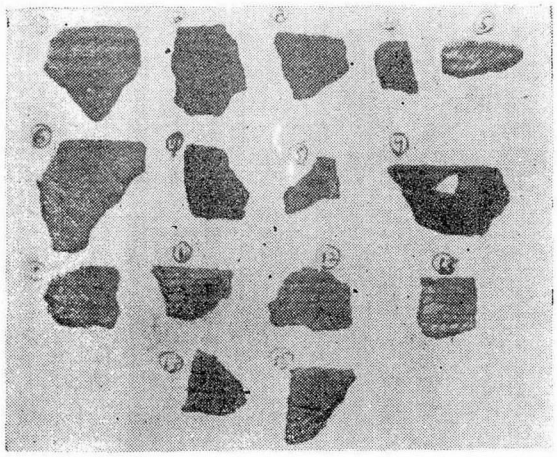
溟州郡 領津里와 加屯地 櫛文土器遺蹟

——第七卷 第六號 通卷七十一號——

任 孝 宰

I

筆者는 지난 一九六四年 四月에 美國 Wisconsin大學校에서 延世大學校에 와 있던 ALBERT MOHR와 함께 江原道 江陵을 中心으로 하는 附近 海岸 地帶의 先史遺蹟을 調査中、새로 領津里와 加屯地의 두 櫛文土器 遺蹟을 發見하게 되었고 다시 同年 十月 二十日부터 五日間 鄭永和(서울大 考古人類學科一回 卒業生)氏와 함께 遺蹟의 中心部分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簡單한 垂直坑을 파서 그 性格의 一部를 究明하였고 採集遺物은 서울大博物館에 保管中이다。



江原道地方의 櫛文土器遺蹟調査는 이미 大正 四年度에 日人學者 鳥居氏에 依하여 江陵土城內에서 少數의 破片을 採集하였고 지난 一九六二年度에는 서

울大 金元龍 敎授에 依하여 春川 校洞 人工 洞穴內에서 五個의 完形 平底櫛文土器의 報告例에 不過하며, 특히 咸南 江上里와 慶南 新岩里의 두 櫛文土器 出土地를 連結하는 東海岸에는 櫛文土器 分布上 긴 空白現狀을 보여주고 있던 此際에 今般 領津里와 加屯地의 두 櫛文土器 遺蹟의 發見과 多數의 遺物이 出土된 것은 韓半島內에서의 櫛文土器의 傳播移動 方向과 함께 이 地方 先史 文化 解明에 좋은 資料를 提供하였다고 하겠다.

Ⅱ

領津里 遺蹟 : 江陵에서 注文津을 向하여 道路를 따라 北上하면 注文津까지 3㎞ 못미쳐 舊東海北部線 鐵道와 道路가 交叉되는 地點이 있다。이 地點에서 海岸까지는 七〇〇m이며 緩傾斜인데 現在 밭으로 使用하고 中間의 平坦地域은 田畓으로 使用하고 있다。櫛文土器片은 道路를 頂上으로 中間의 平坦地域까지의 緩傾斜地에 廣範圍하게 散亂되어 있는데 그 中心部分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選定하여 一·五평방미터 垂直坑 四個를 넣은 結果 地表下 四〇—六〇㎝까지의 細砂層內에서 多數의 櫛文土器 破片과 함께 磨製石斧 一點 石英製 双器 二點 砂岩製 双器二點 骨片 一點이 出土되었다。

採集된 土器片은 全部 小片으로 相當數의 無文樣片도 包含되나 이는 文樣만이 省略된 櫛文土器系統의 土器이며 胎土質에 있어서는 咸鏡道 櫛文土器와 共通되는 粘土質 系統으로 平均두께는 約 〇·八㎝이다。口緣은 內反이고 外反된 것도 있으나 大部分 直立으로 끝나고 一個의 尖底片이 出土된 例로 보아 U 또는 V形의 土器라고 생각된다。文樣에 있어서는 口緣部에 平行 集短線文과 點列文이、器腹部에는 橫走 魚骨文과 斜格文이 主流인데 京畿道 岩寺里나 慶南 多大浦에서 보이는 半截 竹管文이 二~三片 出土되었고、棒狀 施文具에 依하여 비스듬히 柳葉形의 刻文을 土器 全面에 施文한 것은 城津을 비롯한 咸鏡道地方에서 흔히 보이는데 이와 類似한 一片이 採集되었다(사진參照)

이 以外에도 文樣이 單純 機械化되고、口緣部 文樣의 區別없이 器腹文으로 器全面을 施文한 것 또는 斜線方向의 變化에 依하여 菱形의 無文帶를 남기는 土器片이 出土되었는데 이는 櫛文土器로서 後期樣式에 屬한다고 하겠다。

石器는 土器에 比하여 少數에 不過하나 石英製石器의 出現은 興味있는 일이다。

加屯地

江陵에서 注文津을 向하는 道路를 따라 10㎞ 程度 北上하면 砂川이라는 部落에 到達하며 東流하는 小川을 만나는데 小川을 따라 2㎞ 東向하면 東海邊、舊 東海 北部線 緩傾斜面에서 櫛文土器片을 表面採集할 수 있다。

包含層의 範圍는 約 三〇평방 미—터 以內인데 海水에서 約 一〇〇m 떨어진 곳에 一·五평방 미—터의 垂直坑 一個를 넣은 結果 生土까지 一〇五㎝ 層內에서 保存狀態가 不良한 櫛文土器片 少數가 出土되었고 石器는 發見되지 않았다。口緣部에는 平行集短線文과 點列文이 보이며 器腹部에는 魚骨文이 施文되었지만 大體로 單純 機械化되고 長大化되어 있다。

Ⅲ

領津里와 加屯地 遺蹟은 東海岸 低地帶에 細砂로 形成된 現 南韓 東海岸邊에서는 最北上한 櫛文土器 遺蹟으로 器形이나 文樣은 西、南海岸 系統이지만 前記한 바와 같이 一部 文樣은 咸鏡道 地方 櫛文土器와 相似한 片도 있다。그러나 Siberia 沿海州 石器時代 文化圈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咸鏡道地方의 平底나 雷文類 等의 强力한 影響은 보이지 않는다。

領津里 遺蹟 一五—三〇㎝ 層內에서 石英製 双器가 二點 出土된 것과 또한 發掘途中 包含層內에서 數많은 石英破片이 보이는 것은 注目할만한 것으로 Baikal 湖 地方의 櫛文土器가 無莖三角을 伴出하고 蒙古에서는 細石器를、우리나라 咸鏡道나 釜山影島地方에서는 黑曜石製 石器가 伴出되는 것이 한 特徵이라면 本 遺蹟에서는 石英을 素材로 한 石器가 出土된 것이 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 領津里 加屯地 遺蹟은 釜山 東三洞 新岩里나 江陵에서 出土된 櫛文土器와 關聯된 一連의 遺蹟으로 그 時期도 멀지 않은 것이며 文樣이

單純化、簡略化되는 後期樣式도 包含하는 典型的인 新石器時代 櫛文土器遺蹟이다。

益山 王宮里 石塔 調査

黃 壽 永

一、

全北 益山郡 金馬面에서 南으로 約二㎞ 全州로 통하는 道路邊 低丘위에 자리잡은 이 五層石塔은、塔身은 北으로 기울고 塔基는 土壇을 이루어 일찍부터 重修의 論議가 있었다。一九六五年 十一月下旬에 着工하여 解體가 進行되었고 十二月 上旬에 이르러 第一層屋蓋 上面과 心礎石에서 각기 舍利藏置具의 收拾이 있었으나 酷寒으로 말미암아 塔基部를 다시 埋沒한 후 越冬하였다。그리하여 今年 三月에 이르러 復元키로 된 單層基壇 石材의 現場治石에서 비롯하여 再建이 着手되었으며 이와 併行되어서 塔 周邊의 發掘과 塔基의 調査가 이루어졌다。그리하여 前後 七個月이 걸린 이 塔의 重修는 五月末日로서 各工程을 거의 完了할 수 있었는바 그 사이 收拾된 資料는 이 石塔에 관한 研究를 위하여 매우 貴重한 것이었다。아마도 石塔一基에 대한 調査로서는 해방후 最大의 工費와 規模의 것이었는바 이에 參與한 사람들(洪思俊 申榮勳 鄭明鎬 孫龍文 鄭復永 金千石)의 勞苦에 대하여서는 적지 않은 報答이 있었다。

二

古代遺構를 重修하여 未知의 遺物을 檢出함은 하나의 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하물며 이 石塔에서 收拾된 舍利具와 같이 保存이 完全한 경우에는 한층 貴重하기도 하다。合計 五個의 舍利孔중 네 곳에서 각 二個의 金銅函과 金函 純金板經과 靑銅佛像 유리製舍利瓶 구슬類등 그 중에는 初有의것도 있어 黃金燦爛한 그 壯嚴이 크게 注目을 받기도 하였다(本紙七卷一號「益山王宮里石塔內發見遺物」參照) 그러나 石塔調査의 主目的이 결코 이같은 藏置品 收拾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그것은 도리어 石塔 그 自體의 遺構에 두어서 內外의 結構方式이나 그 樣式的 系譜 및 伽藍配置와의 관계 등에 대한 解明이 優先되어야 할 것인 바 이같은 注目과 解明은 當面한 石塔工事의 完遂를 위하여서도 그 前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王宮塔에 있어서 특히 基壇部는 일찌기 破壞되어서 높은 土壇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內部의 調査는 이 塔에 대한 區區한 論議에 대하여 解決의 열쇠를 줄 것으로 期待하여 왔었다。舍利에 對한 期待보다도 더른 關心이 이 土壇解明에 있었는바 石塔研究에 있어서 基壇調査는 그 年代와 樣式을 가리는데 가장 重要한 일이기도 하다。동시에 이 塔이 巨構이어서뿐 아니라 그 占定 地點이 옛부터 上古의 宮闕址라고 傳稱되어 왔기에 그와의 關係 또한 큰 注目과 關心事였다。그리하여 이번 石塔工事와 調査를 통하여 收拾된 資料에서 얻어진 몇가지 要點은 대략 다음과 같다。

三

첫째 石塔解體에 따라서 塔內部(특히 三層以下)의 積心部와 基壇部에서 이 石塔材보다 年代가 앞서는 舊石材와 瓦當등이 發見되므로써 이 石塔의 年代가 그들보다도 後代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이 石塔을 建立할때 屋蓋나 塔身 基壇등 주로 外部에 露出되는 石材만을 新造하고 塔身 또는 基壇內部에 所要되는 것들은 이 遺蹟址에서 採取轉用한 事實이 推定되므로서 종래 막연하게 百濟時代라고 하던 發說은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意見이 모아졌다。이같은 百濟說은 隣近하는 彌勒寺址石塔과 이 石塔이 樣式上 서로 連繼되는 作品으로 본 곳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둘째는 基壇의 解土를 통하여 塔基 四隅에서 八角柱와 그 中央에서 巨大한 心礎石이 露出되었으며(心礎上에는 方形石과 雜石을 쌓아 올린 刹柱가 第三層에 이르게 하였다) 이 塔基를 돌아서 單層方壇을 結構한 甲石 面石등의 破材가 多數 發掘되므로써 基壇의 原形이 짐작케 되었다。그리하여 이 基壇部가 일찌기 崩壞됨에 이르러 古代의 柱形礎石(益山彌勒寺址 法堂址 또는 扶餘 臨江寺址의 것과 同形)등으로서 補强하고 다시